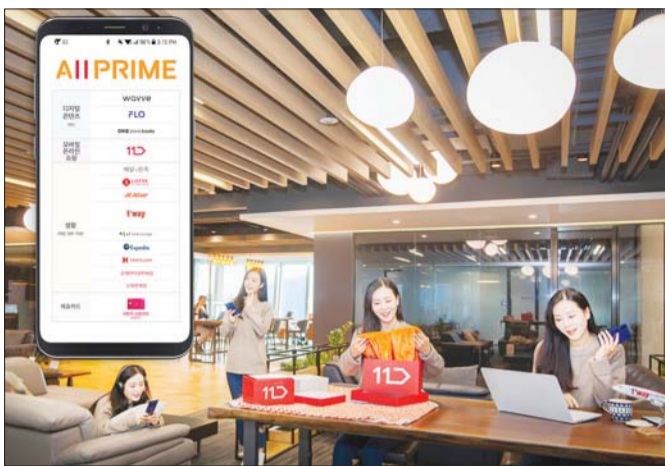


월 9900원에 무제한 콘텐츠... 이통사 구독경제 大戰

SK텔레콤 11번가와 '올프라이미'
KT 아이돌 테마 '원픽' 출시
LG유플러스 유료멤버십 출시 검토



모델들이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올프라이미'를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KT

정기 구독료를 내고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경제가 각 산업에 퍼지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대가를 내고 상품을 소유해야 했다면, 최근 부상하는 구독경제는 자신의 취향과 습성,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구독으로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이러한 구독경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통신사에 구매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구독경제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매달 내는 비용보다 더 큰 혜택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 스위스는 2000년 약 2150억 달러(약 250조 원)였던 구독경제 시장규모는 2015년 4200억 달러(약 489조원)까지 커졌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는 5300억 달러(약 61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은 온라인 쇼핑물 11번가

와 함께 프리미엄 멤버십 '올프라이미(AI PRIME)'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 KT 또한 이용자가 좋아하는 테마와 관련된 혜택을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는 구독형 유료 멤버십인 '원픽'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구독경제를 겨냥한 SK텔레콤의 올프라이미는 월 9900원에 동영상·음악·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혜택, 모바일·온라인 쇼핑 혜택, 여행·영화·배달 등 생활 혜택을 모두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 베이식 이용권(월 7900원) ▲음악플랫폼 '플로' 모바일 무제한

듣기(월 7590원) ▲전자책 서비스 '원스 토어 북스' 도서·웹소설 무제한 패스(월 9900원) 중 한 가지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또 11번가 이용 시 SK페이 포인트 2% 추가 적립, 특가물 접속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생활 혜택도 제공된다. 올프라이미 이용자는 매달 배달의민족 3000원 할인 쿠폰 1매, 롯데시네마 영화 2000원 할인 쿠폰 2매가 지급된다. 여행을 떠날 때는 제주항공·티웨이 항공 할인 쿠폰, 마티나라운지 할인,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이용 시 전 세계 호텔 10% 할인(월 5회)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KT가 지난 9월 출시한 원픽은 3만 6000원(부가세 별도)에 3개월 한시 적용된 서비스다. 첫 테마는 '아이돌'로, KT 갤럭시 노트10 아우라 레드와 광고 모델인 강다니엘 편이 진행됐다. 아이돌 팬덤이 형성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서비스다. 매달 다양한 아이돌 강다니엘 굿즈와 함께 식·음료, 영화관, KT 미디어 혜택 등이 제공됐다.

KT 관계자는 "지난 9월 신청 받아 한시적으로 진행한 원픽 서비스는 출시 첫날부터 이용자가 몰렸다"며 "구독형 유료 멤버십 서비스로 계속해서 선보일

지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또한 구독형 유료 멤버십 서비스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내년부터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25%), 타인의 추천(24%), 경제적 이익(19%), 편리함(12%) 순으로 꼽혔다. 향후 이 같은 개인의 취향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독경제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구독경제 서비스는 초기 비용 감당 능력과 시만족도의 유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IBK경제연구소 정지은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통해 '목인 효과'와 함께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의사결정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선택 시 갈등을 감소시켜 만족감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SK이노, 전기차 핵심원료 코발트 3만톤 확보

세계 1위 생산회사 글렌코어社
약 300만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구매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함의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소재 코발트를 대량 확보했다.

SK이노베이션은 4일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를 장기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세계 1위 코발트 생산회사인 스위스의 글렌코어사와 내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코발트 약 3만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순수 전기차 약 300만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늘어나는 배터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 업계는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5년에는 약 182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 광물인 코발트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모습.

/SK이노베이션

인다. 내년 전세계 전기차용 코발트 수요는 3.2만톤, 2025년에는 9.2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은 코발트 구매 과정에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사는 매년 제3차 기관으로부터 코발트 생산 과정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는데 합의했다. 이는 광물 관련 글로벌 협의체인 'RMI(광물 조달 및 공급망 관리 연합)'의 '코발트 정제 공급망

실사 표준'에 따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윤리적으로 생산·공급된 광물을 구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광물 채굴·생산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코발트는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 지역 아동들의 노동 착취 문제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있는 광물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유플러스, ICT로 장애인 일상 복귀 돕는다... 'U+스마트홈'

트랜짓하우스, 일상 적응 훈련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장애인을 돕는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활병동에 U+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 장애인의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는 장애

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LG유플러스의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LG유플러스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활병동 '트랜짓하우스'에 U+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들의 일상 적응 훈련을 돕는다.

트랜짓하우스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환경으로 구성된 병실로 환자들이

퇴원 후 집안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트랜짓하우스 내 설치된 IoT 멀티탭, 스위치, 간편버튼, 홈 CCTV 등 IoT 서비스 5종과 블라인드,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 제휴 IoT 가전 5종, U+스마트홈 스피커를 이용해 말한 마디로 스마트홈 기기와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 네트워크부 직원들이 일산 테스트베드에서 5G 다중입출력 기반의 가변형 안테나 배열 기술을 검증하고 있다. /KT

KT, 업링크 커버리지 20% 확대기술 개발

빔포밍 기술 이용 감도·속도 ↑

KT는 5G 기지국에 적용해 커버리지를 개선할 수 있는 차별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5G 다중입출력(MIMO) 기반의 가변형 안테나 배열 기술은 업링크 커버리지를 20% 이상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이다.

5G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대규모 다중입출력에서는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를 사용해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속도를 높인다. 우선 다운링크에서는 가입자 별로 전파를 쏘는 빔포밍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 휴대폰의 수신 감도와 속도를 높인다.

반면, 업링크에서는 각각의 기지국 안테나에 수신되는 전파를 결합해 수신감도와 속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하나의 안테나에 수신되는 전파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업링크 커버리지 확보가 어렵다.

KT에서 개발한 기술은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고정된

방식의 안테나 배열을 가변적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변형 안테나 배열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각각의 안테나에 수신된 신호를 무선 환경에 따라 가변적으로 결합해 원래의 신호로 복구해 결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최대화 한 것이다. 이 기술을 기지국에 적용하면 업링크 커버리지를 20% 이상 개선할 수 있으며, 업로드 속도도 증가한다.

KT는 지난 4월 해당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 완료하고 5G 시험망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 5G 커버리지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현재 KT 5G 상용망에 적용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상용장비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 5G 커버리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KT는 5G+LTE 인텔-RAT 핸드오버,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 기술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5G SA(단독망) 네트워크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